

'5·18 산증인' 남재희 신부 마지막 미사

43년 사제생활 정리... 11일 북구 삼각동성당서 은퇴미사 1980년 5월 조비오 신부 등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앞장

'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산증인' 남재희(올리아노·사진) 신부가 43년 동안의 사제 생활을 정리하고 은퇴한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은 올해, 광주의 슬픈 역사를 기억하는 또 한 명의 성직자가 마지막 미사를 올린다.

1980년 5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신군부에 맞서 싸웠던 남 신부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삼각동성당에서 은퇴 미사를 진행한다.

80년 5월 당시, 무안 본당 신부로 재직했던 남 신부는 조비오 신부 등과 함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으로서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

5·18기념재단이 발간한 '5·18의 기억과

역사 5-천주교 편'에 따르면 남 신부는 5월 20일부터 항쟁의 현장에 있었다. 전남대·전남도청 앞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의 대치, 불타는 지역 방송사 등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21일 계엄군 최초 집단발포 순간에도 광주시 동구 호남동성당에서 사제들과 계엄군의 폭력·무기 사용에 반대하는 활동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계엄군의 발표 이후에는 조비오 신부를 보좌해 유혈참사를 막기 위해 시민군 무기 회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남 신부는 1980년 6월 2일 목포 북교동 성당에서 열린 전국 최초의 5·18민주항쟁 관련 특별미사에도 참여해 광주에서의 목격담을 강론했다.



남 신부는 1980년 광주대교구 사제단과 함께 성명을 발표해 5월 광주의 진상을 알렸다. 이 때문에 6월 말 보안사에 연행돼 공군 영장에서 40여일 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후 1981년부터 광주대교구 교육국장 등을 맡게 된 그는 '시민교양강좌'를 기획했다. 이 강좌는 군부예의에 의해 강제 해직된 대학 교수들에게 강연 기회를 주고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광주에서만 6차례 진행됐다.

남 신부는 1983년 3월부터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1987년 4·13 호헌조치가 발표됐을 때 광주대교구 소속 신부 11명과 함께 '직선제 개헌을 위

한 단식기도를 드리면서'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금남로 카톨릭센터 6층 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진행했다.

남 신부는 또 5·18 민주화운동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고, 널리 알리기도 노력했다. 1985년 5월에는 천주교 교회의 활동 자료를 모아 '광주의겨자 자료집'을 발간했으며, 1987년 5월에는 카톨릭센터에서 '5·18 광주의겨자 사진전'을 열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장우승 신부가 독일에서 반입한 5월의 영상을 5·18비디오 테일로 제작하기도 했다. 이는 독일 언론인 힌츠 페터가 1980년 일본을 통해 독일 공영방송 ARD 산하 NDR를 통해 내보낸 광주 학살 영상이었다.

남 신부는 이후로도 여러 차례 5·18추모사진전을 열거나 5월 광주를 주제로 강좌를 펼치는 등 5·18민주화운동을 기억하고 알리는 데 힘써 왔다.

/*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직장내 갑질 직접 조사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직장 내 갑질 등 자치구 인권침해 사례를 직접 조사하는 등 시민 인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광주시는 자치구에서 의뢰한 인권침해 사건을 시 인권옴부즈맨이 조사하고 결정문 형태 회의 결과를 의뢰한 자치구에 통보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일자로 개정된 광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개정 인권조례는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인권옴부즈맨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라크의 아인 알 아사드 미군 공군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 흔적들. 상업용 위성 운영업체 플래티랩스가 제공한 인공 위성 사진을 분석한 미들베리 국제문제연구소는 동그라미를 친 부분들이 피해를 입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군사반격 대신 이란 경제제재"…전쟁위기 넘겼다

전쟁 위기 일보 직전까지 내몰렸던 미국과 이란이 8일(현지시간) 즉각적인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은 평화를 추구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평화를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다"며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시간으로 전날 저녁 이라크 아인 알아사드와 에르빌의 미군 기지가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후 미국의 입장과 대응책을 공식적으로 밝히는 자리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란의 보복 시 "신

속하고 완전하게, 아마도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음을 고려하면 일단 이날 입장은 군사적 충돌의 확산을 자제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강력한 경제 제재를 즉각 부과할 것"이라고 밝혀 경제 제재 카드도 우수할 계획을 피력했다. 이런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국이 벌여온 해외 전쟁과 파병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정도로 반대 입장을 밝혀온 데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란이 미국을 공격하되 사태 봉합을 염두에 두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격 수위를 조절했다는 관측과도 연결되는 대목이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공격 후 트위터에서 "이란은 유엔 헌장의 자위권 차원에서 비례적 대응을 했고 종결했다(concluded)"며 "우리는 긴장 고조와 전쟁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적었다.

외신들은 자리프 장관의 트윗 중 '종결했다'는 표현에 주목하며 미국이 추가로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다면 이란도 이 정드 선에서 보복을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중국 우한 폐렴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中 발표 "백신개발 수년 걸릴듯...추가 연구·조사 필요"

중국 중부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서 집단 발생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이 초보 단계 조사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판정됐다. 9일 중국중앙TV 등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이 바이러스가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추가로 과학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런 바이러스 분석 평가팀을 이끈 중국 공정원의 쉘젠(徐建國) 원사는 "실현실에서 바이러스 분석을 통해 이번 원인 불명의 폐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잠정 판명됐다"고 밝혔다. 쉘젠 원사는 "새로운 발병체에 대한 특효약과 백신 개발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일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초보 판정을 했으며 다음 단계로는 병의 원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 그리고 임상 시험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병의 원인을 찾기 위해 전장 유전체 분석, 핵산 검사, 바이러스 분리 등을 실시했다. 환자 15명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결과가 나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새로운 바이러스가 이번 폐렴 발병의 원인일 것

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앞서 이번 폐렴의 원인으로 사스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조류 인플루엔자 등은 제외했으며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벌여왔다.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는 호흡기와 장의 질환을 일으키는 병원체다. 인간 외에 소, 고양이, 개, 낙타, 박쥐, 쥐, 고슴도치 등의 포유류와 여러 종의 조류가 감염될 수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코로나바이러스는 6종이다. 이 가운데 4종은 비교적 흔하고 보통 감기와 비슷한 가벼운 증상만 유발한다. 다른 두종은 사스 바이러스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로 엄중한 호흡기 계통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한편 우한시 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환자 가운데 8명은 완치돼 전날 퇴원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일 원인 불명의 폐렴 환자가 59명이며 이 가운데 7명이 중증이라고 발표했다. 우한에서 원인불명 폐렴이 집단 발생하자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는 사스 재발 우려가 일었다. 2002~2003년 본토에서 349명, 홍콩에서 299명이 사스로 사망했다. /*연합뉴스

'신문의 날' 표어 공모... 13일~2월 28일 접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올해 제64회 신문의 날을 맞아 신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표어를 공모한다.

독자의 기대와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는 신문의 사명과 책임, 신문의 공익성과 독자적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이란도 이 정드 선에서 보복을 끝내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평가했다. /*연합뉴스

대한 긍정적 이미지나 신문이 우리 삶에 미치는 효과를 표현하면 된다.

대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 각 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응모작은 1월 13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국신문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시상식은 4월 6일 신문의 날 기념행사에서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호반건설 "광주시 사업 과정서 어떤 특혜도 없었다"

민간공원 검찰 수사관련 주장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혜사업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광주시 사업 전반에서 이윤성 시장 등 시청 관계자와 이 시장 동생에게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9일 주장했다.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으려고 신생 업체인 K사와 철근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발표됐으나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호반건설은 2011년께부터 이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해 23회에 걸쳐 정상적, 지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회사가 2017년 입증을 전환해 다년간 거래에 따른 기존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철근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호반건설의 주장이다.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혜사업에서도 광주시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광주시에 지난 8일 입장문을 내어 "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평가 기준을 잡은 적도 없고, 소신 행정에 변함이 없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9개월 간 강도 높게 수사했음에도 공직자 누구도 금품 수수나 업체 유착 등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광주 시장 동생의 기소 건은 민간공원 특혜사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 역시 법원에서 진실을 가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 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요양병원, 힐링센터 부지/매/매

- 풍암동, 화순 전대병원 10분거리
- 현재 한옥식당 및 찜질방
- 계획관리지역 약3000평 (용적율 40% / 100)
- 보존관리지역 약2500평 (편백나무숲, 산책로 조성가능)
- 매매가격 33억5천만원 (용20억포함)

힐링센터 공동투자자 모심

- 개인명의 재산을 법인으로 100% 전환 후 지분 50:50
- 공동대표 등기 후 투자자께서 100% 운영
- 투자금액 13억5천만원 (힐링센터 시설 리모델링 비용)

소유자 : 010-7570-7525
(나주시 남평읍 풍림죽림길 8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투자·매도·교환

- 원산동 돌고래역 인접 소방도청 2층 주택 106㎡ 집 112㎡ 공방등 적합 1억3천
- 전원주택 적합 영광군 백수해안도 인근 1130㎡ 전망 좋음 1억3천
- 서구 마로동 도로점 378㎡ 장기투자해 좋은 대지임 5억
- 남구 원산동 원산아파트 부근 664㎡ 주택 124㎡ 4억3천
- 전북 부안군 백산면 소재지 상업지 706㎡ 무인텔 등 적합 교환 가능 2억
- 목포시 외도(달동) 329평, 638평 투자전망치고 평당 23만원
- 화순 농촌소재지 2612㎡ 전원생활화합 2억7700
- 함평군 송촌면 산남리 9143㎡ 집 67㎡ 귀농생활 적합 2억
- 별장 영산강 부근 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450㎡ 건평 110㎡ 매도 2억8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청고 공장 등 적합 6억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빌라 등 적합 약국용 건물과 교환 가능 20억
- 담양군 금성면 석현리 915㎡ 창고·다세대 등 다용도 적합 2억9천
- 남구 덕남동 (노대동 노인건강타운) 부근 대지 652㎡ 남향 가격조정 가능 5억5천
- 남구 덕남동 산10000㎡ 사할·화가 화실·작가 작품 활동 적합 건물 67㎡ 5억

상가 건물

- 백양사와 내장사 사이 추령교개 403㎡ 가계 197㎡ 카페용·편의점 적합 1억3500
- 서석동 조대방 4층 상가 405㎡ 건물 919㎡ 임대 보증금 6천 월 280, 12억
- 은암동 아파트상가지 205㎡ 매입 2억 창고 사무실 적합 은행7천 매도 1억6천
- 충장로4가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9천 월1200 매도 26억
- 원산동 농성초교 도로점 190㎡ 2층 상가주택 185㎡ 매도 3억
- 은암동 아파트 단지 인근 1124㎡ 건물 1733㎡ 전세 7천 월 680 임대 21억
- 유동 신축커뮤니티 단지 73㎡ 2층건물 30평 시설완비 은행 1억 매도·교환 3억6천
- 북구 인동 모델 땅 318㎡ 건평 5층 528㎡ 은행 2억3천 매도 6억천

특급 물건

- 함평 해보면 땅 14072㎡ 농장 등 적합 4억2천 조건·가격은 상의함
- 목포대부군 창계면 도림리 2중주거지 4413㎡ 강정 5억전농협 4억2천 매도 1억천
- 화순군 동면 서성계 무등산 밑 광주 인근 최고별장지역 은행 2-3억 있는 별장과 상가건물 원룸·내차지 등과 교환할, 매도는 5억-7억임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마트·식당·다기구 적합 은행 5억 교환가능 9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연문앞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8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예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 지국안내 •

북구	·동 광 266-1920	·문 총 266-1960	·북광동 525-3761
	·신 안 222-8171	·안 산 571-7658	·오 지 266-7601
	·용 통 433-1503	·우 산 433-1503	
동구	·남 광 675-5530	·동 명 222-9054	·동 부 225-6001
	·중 앙 222-9054	·중 정 222-8171	
남구	·남 부 652-0175	·백 은 651-1833	·봉 선 675-5530
	·송 화 675-6605	·진 월 671-7276	
서구	·광 천 382-5788	·상 우 372-2352	·서광동 369-1625
	·광 천 376-7153	·치 평 376-6511	·풍 암 603-0311
	·화 정 369-1625		
광산구	·운 남 952-1687	·월 곡 959-1920	·침 단 973-2900
	·하 남 955-0451	·광 산 944-0444	